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

| | | |
|-------------------------------------|------------------|--------------------|
| 박 정 은 | 정 서 진 | 남 궁 미 [†] |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학생 |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서강대학교 학생 |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TGNC)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회기 이상 상담을 받은 TGNC 9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용기를 내서 상담에 찾아가기, 상담에서 나를 드러내기,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됨,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함,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됨,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 함 등의 6개 범주, 16개의 주제 묶음, 5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 참여를 결정한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상담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담을 시작한 후에는 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상담자와의 신뢰를 더 잘 형성하고 상담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TGNC 내담자에게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자가 지녀야 할 지식, 태도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트랜스젠더, 젠더비순응, TGNC, 상담경험, 현상학적 연구

[†] 교신저자 : 남궁미,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Tel : 02-3275-4974, E-mail : mimi8727@gmail.com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지정성별)과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015).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2001년 하리수 씨의 데뷔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박지훈, 이진, 2013;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이처럼 하리수 씨의 등장, 트랜스젠더 인권활동단체 ‘지렁이’의 결성, 최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군인의 전역 여부(한겨레, 2020. 1. 16)에 대한 논의까지 한국 사회 내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의 삶이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가시화되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해졌고, 트랜스젠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스젠더(Cisgender)’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시스젠더는 지정성별과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별이나 성별표현과 일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 중 하나로 자신을 인식하는 시스젠더나 트랜스젠더와 달리,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2019년 5월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거리의 만찬’ 프로그램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 다루었는데, 해당 방송에는 바이젠더(Bigender)나 에이젠더(Agende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

장했다. 바이젠더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별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한편, 에이젠더는 자신을 어떤 성별로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시스젠더가 아닌 모든 소수자를 일컫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TGNC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자)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비교적 잘 알려진 트랜스젠더에 비해 젠더비순응자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용어로, 젠더비순응자는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에 따른 규범과는 다르게 성별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성별 표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 미국 심리학회는 최근 개정된 출판 규정(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을 통해 TGNC가 학계에서 합의된 용어라고 밝혔는데, 이는 TGNC가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자를 지칭할 때(시스젠더가 아닌 사람 모두) 더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에이젠더의 경우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TGNC의 범주에는 포함된다.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TGNC는 시스젠더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Becerra-Culqui et al., 2018), 정신병리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Hendricks & Testa, 2012), 이는 TGNC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및 차별과 무관하지 않다(Bockting, Miner, Romine, Hamilton, & Coleman, 2013). 국외에서 TGNC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총 6,450명)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가 신체적 공격, 성폭력, 학교에서 괴롭힘, 직업 장면에서의 차별 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보고

했다(Grant et al., 2011). TGNC의 이런 경험은 Meyer(2013)가 주장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에 해당한다.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낙인화된 소수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경험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TGNC의 소수자 스트레스는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공교육, 화장실 사용 등의 일상생활, 자신이 TGNC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취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면에서 경험된다. Meyer(2013)는 이런 소수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TGNC가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시스젠더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많다(Bieschke, McClanahan, Tozer, Grzegorek, & Park, 2000).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TGNC 내담자는 상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과정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Shpherd, Green, & Abramovitz, 2010). TGNC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까봐 걱정했으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자 선택 과정에서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상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McCullough et al., 2017). 이와 같은 선택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TGNC 내담자들은 여전히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rs, Plummer, & Minichiello, 2005). 상담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성만 존재한다고 믿고, 태어날 때 지정되는 성별이 개인이 인식하는 성별과 당연히 일치할 것이라고 믿는 젠더리

즘(genderism)에서 비롯되는 상담자의 인식이나 언어 사용은 TGNC 내담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차별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상담자로부터 “내가 만난 다른 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라거나 “트랜스젠더인지 당신이 말하기 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등의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¹⁾에 해당하는 말을 들은 TGNC 내담자의 경험이 보고된 바 있다(McCullough et al., 2017). 반대로, 상담 경험이 긍정적이었던 TGNC 내담자는 상담자가 성별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거나,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자신이 성별 정체성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Elder, 2016; Hunt, 2014, Israel, Gorcheva, Burnes, & Walther,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성별 정체성이나 젠더 이슈 등에 대한 지식 및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 등 상담자의 태도 및 역량이 TGNC 내담자가 상담(자)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TGNC 내담자를 상담할 만한 역량을 지닌 상담자의 수가 적다는 점이 문제로 인식되었다(Garofalo, Deleon,

1) Microaggression은 사회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미묘하고 은밀한)알아차리기 어려운 차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Sue, 2010). Nadal(2013)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microaggression의 경향성을 분석하여, 9가지 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보편적인 경험의 가정’인데,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자는 모두 패션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처럼, 남성 동성애자가 모두 공통된 경험이나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타인(의 행동)을 지칭하면서 ‘게이(남성 동성애자)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미묘한 차별에 해당한다.

Osmer, Doll, & Harper, 2006; Grossman & D'Augelli, 2006). 2009년 미국 심리학회가 심리치료사 및 상담 및 심리치료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TGNC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 비율이 30% 미만에 불과할 만큼 TGNC 내담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담자의 수가 적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2015년 TGNC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및 원칙들을 담은 상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필수교과목 중 하나인 다문화 수업을 통해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이슈만을 다루는 다수의 학회지를 통해 TGNC의 정신건강 증진, TGNC 내담자 상담 역량, 상담자 훈련 등 다양한 주제들의 논문이 게재되는 등 TGNC 집단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TGNC 상담에 대한 논의나 정보제공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일례로, 상담 심리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상담 및 심리치료'나 '상담학 연구'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트랜스젠더나 젠더비순응 내담자 상담에 대한 연구는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상담학 분야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바이젠더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경험(조정은, 2016), TGNC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기독교 상담사의 인식(이민정, 2015)에 대한 연구가 전부로 매우 제한적이다.

TGNC는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자라는 점에서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소수자인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와는 다른 TGNC만의 고유한 경험이 존재한다(Fassinger & Arseneau, 2007).

예를 들어, TGNC 중 일부는 단순히 외모에 변화를 주는 수준을 넘어 신체에 변화를 주는 의료적 수술이나 조치를 취하며, 성별 정체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 구별된다(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또한, TGNC는 신체적 외형이나 외모표현으로 인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와 같은 소수자에 비해서 더 눈에 띄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나 낙인에 더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손인서 외, 2017).

이처럼 TGNC 경험의 고유성을 고려할 때, TGNC 내담자와의 상담 역량이나 전문성, 상담 실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한 TGNC 상담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지침은 상담자가 TGNC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상담 역량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성별 정체성 및 젠더 이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며, TGNC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억압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TGNC 내담자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GNC는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고유한 어려움을 겪고, 사회로부터 차별이나 억압으로

인해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TGNC는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만났을, 혹은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내담자 집단 중 하나이다. 상담자의 대다수가 시스젠더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명백히 시스젠더 중심의 사회임을 고려할 때, TGNC는 상담자에게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TGNC 내담자와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기회, 유용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TGNC 내담자가 상담자나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담자가 TGNC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GNC 내담자의 상담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의 상담 경험은 어떠한가?

방 법

본 연구는 TGNC 내담자의 상담 경험을 직접 듣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 경험한 것(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며, 여러 개인이 경험한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Creswell, & Poth, 2016). 특히,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수량화가 어려운 깊은 의식이나 연구대상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이현주, 2005), 상담(심리) 분야에서 상담에서의 내담자 경험, 상담 과정의 진행 등의 주제를 다룰 때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Halling, & Nill, 1995). 따라서, 연구자들은 TGNC 내담자의 상담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상담 기관에 단회의 검사 해석이나 일회성의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내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회기가 2회기 이상인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는 TGNC 성인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들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각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메일을 보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하였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위해,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은 참여자 모집 안내문에 적힌 연구자 이메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는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자세한 소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인터뷰 과정에서 예상되는 참여자의 이득과 불편함, 인터뷰 녹취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연구 설명문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11명 중 청소년 1명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경험만을 갖고 있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명을 제외한 9명이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 번호 | 나이 | 성별정체성 | 상담경험 | 상담 회기 | 상담 비용 | 상담기관 |
|----|-----|-----------------------------|------|-------------|-------|------|
| 1 | 20대 | Genderqueer (Non-binary) | 3번 | 15회 | 무료 | 단체 |
| | | | | 1년 이상 | 무료 | 대학 |
| | | | | 1년 이상(진행 중) | 무료 | 대학 |
| 2 | 20대 | Male(FTM) | 3번 | 6개월 이상 | 유료 | 사설 |
| | | | | 2~3개월 | 유료 | 사설 |
| | | | | 11회 | 무료 | 대학 |
| 3 | 20대 | Transfeminine | 3번 | 30회 | 유료 | 대학 |
| | | | | 1년 | 유료 | 사설 |
| | | | | 1~2개월(진행 중) | 유료 | 대학 |
| 4 | 30대 | Male(FTM) | 4번 | 3년 | 무료 | 중학교 |
| | | | | 2년 | 무료 | 고등학교 |
| | | | | 24회 | 무료 | 사설 |
| | | | | 2년 | 무료 | 사설 |
| 5 | 30대 | Male(FTM) | 3번 | 8회기 | 유료 | 단체 |
| | | | | 12회기 | 유료 | 사설 |
| | | | | 4~5개월 | 유료 | 사설 |
| 6 | 20대 | Female(MTF) | 3번 | 13회 | 무료 | 대학 |
| | | | | 13회 | 무료 | 대학 |
| | | | | 4회 | 유료 | 사설 |
| 7 | 20대 | Genderqueer (Non-binary) | 3번 | 1년 이상 | 무료 | 대학 |
| | | | | 4회 | 유료 | 사설 |
| | | | | 16회(진행 중) | 유료 | 사설 |
| 8 | 30대 | Genderqueer (Non-binary) | 2번 | 7회 | 유료 | 사설 |
| | | | | 30회 | 무료 | 단체 |
| 9 | 30대 | Female(MTF) | 1번 | 10회 | 유료 | 사설 |

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mail 주소, 나이 등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당일까지 참여자와 주고받는 모든 연락을 익명이 가능한 메신저 방을 이용해 주고받았다.

연구자들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에 권장되

는 표본의 크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수를 결정하였다. Dukes(1984)는 최소 3명, 최대 10명을 적합한 표본의 크기로 보았고, Polkinghorn(1989)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5명을 인터뷰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표본 수(9명)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연구 절차를 진행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정체성을 기준으로 보면,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참여자는 5명, 논 바이너리(Non-binary)²⁾로 정체화한 참여자는 4명이었다. 참여자들은 가족갈등, 성별 정체성, 학업 등 단일한 혹은 다수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상담 기관에 방문하였다. 상담을 받은 기관은 대학교 상담센터, 사설 상담센터, 성소수자 관련 상담소 등으로 다양했으며, 상담 기간 또한 7회기부터 1년 이상의 장기상담까지 다양했다. 일부 참여자는 한 번 이상의 상담을 종결하고 그 이후 다른 기관이나 상담자에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상담을 받고 있었다.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방음이 가능하고 주변의 방해가 받지 않는 개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인터뷰는 약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를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주제, 목적, 그리고 연구 참여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참여자가 연구 과정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동의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인

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참여자를 지칭할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미리 묻고,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그 호칭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현상에 관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현상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준 상황이나 맥락은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사용한다(Moustakas, 1994). 따라서, 연구자들은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은 어떠셨나요?’라는 포괄적인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 더 충분히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터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질문목록을 연구자 간 회의를 통해 사전에 구성하고,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상담자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상담 경험 중 긍정적/부정적으로 느낀 것들이 있나요?’ 등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참여자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녹음된 참여자의 말을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고, 해당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였다.

2) 논 바이너리(Non-binary)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젠더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Mardell, 2016), 남성이나 여성, 둘 중 하나의 성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논 바이너리는 크게 보면 젠더비순응의 범주에 포함된다.

연구자의 준비도 및 연구 타당도

본 연구의 연구자는 총 3명으로, 상담 분야 박사 수료생 1명, 박사 재학생 1명, 석사 졸업생 1명으로 이루어졌다. 3명의 연구자는 이전에 성소수자 관련 주제로 현상학적 접근

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모두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거나, 질적 연구방법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 시작 전 각자가 본 연구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신념, 선입견, 지식 등을 탐색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Creswell & Poth, 2016). 그 과정에서 도출된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입견 또는 편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상담주제는 트랜스젠더나 젠더비순응 정체성으로 인해 겪는 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디어에 등장한 트랜스젠더들의 이미지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상담자의 무의식적인 언어표현이나 용어 사용을 참여자가 차별로 느낀 것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진행, 인터뷰 내용 전사, 전사 후 자료 분석 등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앞서 언급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주의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로 임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이근호, 2007)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마친 후, 분석 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확인(member checking)을 요청하였다(이정빈, 2018). 참여자 확인은 연구자의 편견이 분석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들은 인터뷰 진행 시 추후 참여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렸고, 자료 분석이 완료된 후에 인터뷰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진술문과 그 진술문에서 어떤 주제가 도출되었는지를 참여자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진술문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의도나 경험과 다르게 기술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자 9명 중 7명에게 분석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7명의 참여자 모두 분석 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빠진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수자(auditor)에게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의 감수자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오며 성소수자 상담 관련 자료 발간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수자에게 본 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체영역에 대한 범주, 주제묶음,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감수자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범주결과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전반적 기술에 대해 제안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성별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이 혼용되어 기술되어 있으므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범주는 포괄적으로, 주제묶음 및 주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주제 및 주제묶음이 중

복되므로 주제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들은 의미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주제 묶음이나 주제를 통일하거나 삭제하였고, 각 주제나 주제묶음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및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담자 찾기' 주제 묶음은 의미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담자 찾기'로 수정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방법을 참고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분석 대상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미루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Giorgi, Colaizzi, Van Manen의 방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이남인, 2019), 그 중 Colaizzi의 분석 방법은 다른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에 비해 전체 연구 참여자 경험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분한 외, 1999). 이처럼 Colaizzi의 현상학적 기술 방법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체험을 드러내는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체험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어(이남인, 2014),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Colaizzi의 7단계 기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Colaizzi, 1978). 첫째, 연구자들은 축어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의미와

참여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축어록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은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진술이 암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성의미를 도출하였다. 넷째, 연구자들은 도출된 구성의미들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끼리 묶어 하나의 주제로 만든 후, 연관된 주제들을 묶어 주제 묶음, 공통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주제묶음을 다시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연구자들은 1차 범주화를 마치고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최종 도출된 범주, 주제 묶음, 주제들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 없이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은 54개의 주제를 찾아내고, 그 주제를 16개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였으며, 16개의 주제묶음은 다시 6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를 하는 과정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초기 범주화 작업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연구자가 자신의 분석 내용에 대해 이유와 근거를 다른 연구자에게 설명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의견을 채택했다. 여섯째, 연구자들은 도출된 분석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먼저 기술한 후에, 포괄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연구 주제의 근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다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도출된 결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및 수정사항을 확인하였다.

결 과

경험을 분석하여 범주화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경험한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것은 용기를 내서 상담에 찾아가기, 상담에서

표 2.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 범주화 결과

| 범주 | 주제목록 | 주제 |
|-----------------------|---------------------------------------|--|
| 용기를 내서 상담에 찾아가기 | 상담의 필요성을 느낌 | 누구에게라도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절박함 |
| | |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통해 내가 괜찮지 않음을 깨달음 |
| |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있는 상담자 찾기 |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정체화 등 이슈의 해결이 필요함 |
| | | 상담에서까지 차별과 편견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음 |
| | | 성소수자 친화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음 |
| 상담 자체에 대한 낯섦, 두려움을 가짐 | 상담자를 선택하는 나의 기준이 몇 가지 있음 | |
| |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함 | |
| 상담에서 나를 드러내기 |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걱정함 | 상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 | |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음 |
| | 나를 어디까지 보여줄지 결정하기 | 상담자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 | |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전문성에 대한 걱정/신뢰 부족 |
|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됨 | 상담자에게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갖게 됨 | 이 상담에서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필요한지 결정함 |
| | | 상담자의 전문성 및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정체성 드러내는 수준을 달리함 |
| |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 마음이 열림 |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음 |
| | | 상담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 |
| | |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설명함 |
| 상담자에게 공감 받는다고 느낌 | 상담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 |
| | 상담자와 서로 알아가고 맞춰감 | |
| |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 | |
|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상담을 경험함 | 내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핌 | |
| | 상담자의 더 잘 이해하려는 태도 / 노력을 보게 됨 | |
| | 상담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 | |
| | |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수준 높음 |
| | | 상담자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줌 |
| | | 상담자와의 진심으로 내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자 함 |
| | |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짐 |
| | | 나의 이야기를 말할 곳이 있어서 좋고 그 자체로 도움이 됨 |
| | | (성별정체성을 밝힌 후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수용 받는 느낌 |

표 2.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 범주화 결과 (계속)

| 범주 | 주제목음 | 주제 |
|-----------------------------|---|-----------------------------------|
|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함 | 나에 대해 성찰하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봄 |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됨 |
| | | 상담자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줌 |
| | | 상담 후 나아졌다고 느끼며 마음의 여유가 생김 |
| | 내 정체성을 수용하고 깊이 이해함 | 감정 조절 및 표현,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음 |
| | | 내 정체성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됨 |
| | | 정체성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음 |
|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됨 | 상담자의 자질과 역량이 의심스러움 | 내 정체성을 깊이 탐색하고 확립해 감 |
| | | 내 정체성으로 인해 겪는 고유의 어려움이 있음 |
| | | 상담자가 나를 거부하거나 화를 내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 | | 상담자가 판단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트랜스젠더 / 젠더비순응에 대한 상담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마주함 |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음 |
| | | 상담을 그만두게 됨 |
| | | 상담자가 성별정체성 이슈 다루기를 회피함 |
| | | 상담자가 차별적인 발언을 함 |
| | | 상담자가 정체성과 과거 사건을 연결지음 |
| | | 상담자의 고정관념(젠더이분법 / 이성애중심주의)을 확인함 |
| 상담자에게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지침 | 상담자가 트랜스젠더/ TGNC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됨 | |
| | 상담자가 성소수자 이슈 전반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함 | |
| | 상담자가 TGNC 이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함 | |
| 상담을 받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 성소수자 및 TGNC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 | |
| | 상담 비용이 부담이 됨 | |
| | 상담자와의 일정 조율 실패로 상담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 |
| | 기관에서 규정하는 상담회기의 제한으로 충분히 상담받지 못함 | |
| | 의료적 지식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상담자가 제공해주기를 기대함 | |
| |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함 | |
| 상담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음 | 젠더정체성이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상담자가 먼저 탐색해주길 기대함 | |
| | 상담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가 남음 | |
| | 상담에 그럭저럭 만족함 | |

나를 드러내기,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화합,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됨,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함

함, 6개 범주로 구분된다. 표 2에서는 인터뷰 참여자의 상담 경험과 그 의미를 범주, 주제 묶음, 주제 순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범주, 주제 묶음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참여자의 진술을 함께 제시하였다.

범주 1: 용기를 내서 상담에 찾아가기

용기를 내서 상담에 찾아가기 범주는 참여자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후에 어떤 상담자나 상담 기관을 찾아갈지를 결정할 때 거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범주는 ‘상담의 필요성을 느낌’,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담자 찾기’, ‘상담 자체에 대한 낯설, 두려움을 가짐’이라는 세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의 필요성을 느낌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불안감이나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외에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신청한 참여자도 있었다.

“그냥 계속 뭔가 우울한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 건강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힘들면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8)

“처음에는 그 당시에 사귀던 친구가

있어서, 그 관계를 관련한 거랑 그리고 그때 막 정체화를 하던 시기라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었고요” (참여자 5)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상담자 찾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상담자와 상담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추천을 받거나, 온라인 검색을 하는 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을 하는 상담소나 상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참여자 중 일부는 상담자의 성소수자 상담 경험 여부,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데, 참여자 나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상담자의 특정 이력이 TGNC인 자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

“전 트위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트위터 계정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뭔가 트랜스 인권에 대한 거나 어... 네 그런 젠더비순응에 관한 이야기들 리트윗하시는 거나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잡지라던가 책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데 그중에서 제가 읽는 책이랑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이런 퀴어나 트랜스젠더인 분들의 상담을 한다. 당사자이기도 하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또 이제, 제 생각, 제 편견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그런 거에 오픈된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거든

요.” (참여자 1)

상담 자체에 대한 낯설, 두려움을 가짐

참여자들은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초기에 상담이 도움이 될지, 상담자가 어떤 사람일지, 상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해서 시작한 상담이지만,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물론 당사자들도 물론인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정신 상담이라는 거 자체가 희귀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참여자 9)

범주 2: 상담에서 나를 드러내기

상담에서 나를 드러내기 범주는 TGNC 내담자가 상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담자에게 알리고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범주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걱정함’과 ‘나를 어디까지 보여줄지 결정하기’라는 두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 걱정함

참여자들은 상담을 시작한 후에도 상담자가 TGNC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라도 자신에게 차별적인 발언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적 언어에 지

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만큼은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저는 상담윤리강령을 알고 있거든요. 다양성 존중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서, 혹시라도 혐오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중략)... 줌.. 어.. 걱정됐죠. 포빅한(성소수자 혐오적) 발언 할까 봐. 포빅한 발언하면 이 사람을 일단은 내가 아는 선에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통하면 학회에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1)

“아무튼, 저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고. 그걸 특히 상담 장면에서 듣는다면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참여자 5)

나를 어디까지 보여줄지 결정하기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게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언급 없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당면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동시에 상담자와의 관계나 상담자에 대한 신뢰 수준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담자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 중 일부

만을 이야기하거나 이해되기 쉬운 수준으로 바꿔 말한다고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왜 부모님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았냐, 아니면 왜 중, 고등학교 때 왜 네가 그렇게 힘들었니, 왜 왕따를 당했니, 왜 왜 어울리지 못했니, 아니면 너희 집에는 왜 졸업앨범이 없어,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참여자 2)

“제가 사실은 완전히 트랜스 남성은 아니거든요. 논 바이너리 쪽인데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기에는 제가 좀 피곤해 갖고 트랜스 남성이라고 했어요.” (참여자 4)

범주 3: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됨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됨 범주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며 맺는 관계 경험, 내담자로서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상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겪는 감정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범주는 ‘상담자에게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갖게 됨’,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 마음이 열림’, ‘상담자에게 공감 받는다고 느낌’,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상담을 경험함’이라는 네 가지 주제목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자에게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갖게 됨

참여자는 상담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한번 형성되면 상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해 상담자에게 표현하고 물어보는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사실은... 우리도 말하다가 이상한 말 할 수도 있고, un-PC(un-politically correct)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나와도 아 근데, 선생님,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신뢰.. 저 사람이 들어줄 거란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쌓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참여자 5)

상담자의 개방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 마음이 열림

참여자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나 정체성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상담자가 개방적인 모습 및 태도를 보일 때 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됐는데, 특히 상담자가 스스로 TGNC 관련 개념이나 용어 등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실수하거나 틀릴 가능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을 개방적인 태도로 인식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나 경험을 언급할 때 상담자가 비판단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거나, 온라인이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 이해 수준을 높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단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중간에 공영방송에서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방송 나왔을 때도. ‘이런 이런 방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 까 사실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약간 이런 상담사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사실 당사자들도 안 챙겨보는 사람 많은데, 다음 상담 때도 말씀드리니까, 챙겨보셨다 하더라고요. 가족분 들하고” (참여자 6)

“모르면 물어보셨다는 점? 먼저 판단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런, 그, 아님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거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가 틀렸나요? 라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참여자 2)

상담자에게 공감받는다고 느낌

참여자들은 상담에서 나눈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 대인관계,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자가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여 공감해주거나 격려해줄 때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앞두고) 뭔가 신경을 써주는 건가, 이게 뭔가 정신이 이상해서 뭔가 하면은 안 되는데 하고, 이상한데 쉬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잘 갔다 와라, 약간 이렇게 되는... 그 프레이밍이 달라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어떻게 저희 성별 정체성과 연관되는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제가 논 바이너리라는 건 저의 맥락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중략) 예를 들면 제가 요번에 동생이 결혼해서 결혼식에 가야 하는 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나 자신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동생의 결혼식에 가면 거긴 세트르 이성애 사회인데 그런 리추얼(ritual)에 가면 당연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거나.” (참여자 7)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상담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느낄 때 비밀보장과 더불어 상담을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또한,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적어도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상하다거나, 치료해야 하는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사실.” (참여자 5)

“사실 이제 다른 소수자들도 그렇겠지만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그거 관련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체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범주 4: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함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함 범

주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입을 통해서, 혹은 상담에서 자신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범주는 ‘나에 대해 성찰하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봄’, ‘내 정체성을 수용하고 깊이 이해함’이라는 두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나에 대해 성찰하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봄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생각하는 방향성 등이 달라짐을 느끼면서 자신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보고하였다.

“이제 카톡한 내용을 보여드린다든지 근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아님 왜 그럼 뭐 왜 왜 이게 offensive 하다고 생각하고? 왜 offensive 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전이 있었어요.” (참여자 3)

“소통하는 스킬도 있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좀 더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좀 더 생겼고요. 마음의 갈등 요소를 해소를 한다거나 축소해서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9)

내 정체성을 수용하고 깊이 이해함

참여자들은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상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를 솔직하

게 털어놓고 상담자와 함께 그 주제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정체성이 자신의 심리 내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됐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제가 논 바이너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꼭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제가 논 바이너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정욕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은 하지만 (음) 그러나 제가 회사에서 논 바이너리라고 말할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성으로 패싱³⁾되는 복장이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참여자 7)

“학교에서 왜 못 어울리는지, 왜 우울감이 계속되는지, 그다음에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는데, 타인이 아니라 저는 저한테 화가 났었거든요. (중략) 근데 제가 정체화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이유가 나왔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체성 때문에 살면서 이제 우울감이라던가 그런 게 생겨서 방문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범주 5: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됨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3) 자신의 TGNC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지 않고, 시스젠더 여성이나 남성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좌절됨 범주는 상담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거나 상담자의 반응이나 개입이 부적절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던 경험, 상담자가 자신을 상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범주는 ‘상담자의 자질과 역량이 의심스러움’,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에 대한 상담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마주함’, ‘상담자에게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지침’이라는 세 가지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자의 자질과 역량이 의심스러움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느낄 때, 상담자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내담자가 얘기한 내용이나 맥락에 집중하지 않고,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판단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반응할 때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 함께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상담자의 말이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모님의 성향이 **씨의 이런 성적인 성향과 관계가 없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고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죠. 뭔가 논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략) 논리의 비약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전 회차에서도 두 번 있었고 이게 세 번째로 그렇게 하신 거라서 저도 몇 번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막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

긴 했어요.” (참여자 7)

“자기(상담자)가 못 느끼는 불편감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냥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이 저게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 거겠구나 라고 믿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아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트랜스젠더/젠더비순응에 대한 상담자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마주함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접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해 트랜스젠더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 고정관념에 기초해 자신을 평가한다고 느꼈다. 참여자 1은 상담자가 자신에게 ‘트랜스젠더 같지 않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상담자의 말은 이미 상담자가 ‘트랜스젠더 다운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미지 혹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5의 진술 역시 상담자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및 성별 표현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 FTM이면은 보통 생각하는 남자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구체적인 워딩은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좀 더 남자 같아졌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게 사실은 어떤 요소들이 남자 같더라는 걸 라벨링하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은 트랜스젠더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젠더 표현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하면서도 자기 젠더

는 FTM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참여자 5의 ‘위험한 발언’이라는 표현은 상담자가 FTM이라면 특정한 외모 표현을 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시스젠더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도 다양한 외모 표현(복장, 머리 모양 등)이 가능하듯이,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참여자는 상담자의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담자에게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지칭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상담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 소진됐던 경험을 보고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처한 상황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는 데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소진을 경험했다.

“설명을.. 시간이 가니까. 설명하는데 20분 지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참여자 8)

범주 6: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함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함 범주는 상담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 조율이나 비용,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상

담 종결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범주는 ‘상담을 받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상담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음’이라는 두 개의 주제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상담을 받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대부분의 참여자는 상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상담자와의 일정 조율의 어려움,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 기관의 회기 제한 정책 등의 이유로 상담을 일정 시점에서 종결하게 됐을 때 참여자들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유료상담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담 참여 및 회기를 계속해 나갈 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

“개인의 삶이 있다 보니까, 상담자도, 근데 그 개인의 삶이 상담의 주기도도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상담자가 어딜 가서 한 달에 한 번 온다던가, 두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근황 토크 하다가 끝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사실 정말 저렴하게 상담하시는 데 여도 적어도 한 회기에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받는데, 그 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면은 적어도 월에 40은 빠지는 데...(중략) 그 비용을 내고.. 한국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귀어들 중에 그런 마음 아

픈 사람들 중에 그 정도로 수익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참여자 8)

상담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음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상담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 및 이슈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감을 포함하여 TGNC로서 경험하는 고유한 어려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담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먼저 탐색해주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제가 테스토스테론을 맞고 싶은데, 이 상담사분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의사분을 소개해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도 아마 다른 내담자분들도 문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신다든가 의료적인 트랜지션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참여자 7)

“어떤 큰 상담 이론 자체에 얼마나 사실 거기서 여태까지는 전제가 어떤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됐었고 그거를 토대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을 텐데. 근데 거기서의 남성은 어떤 사실 시스젠더 남성 시스젠더 여성으로 전제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건 충분히 말했을 거고 그럼 지금 과연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담 서비스를 나는 받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한 기본적인 조금의 회의? 까진 아니어도 약간 조금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 왔어요.” (참여자 3)

논 의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의 상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TGNC 내담자에게 지지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트랜스젠더나 젠더비순응 정체성을 가진 9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하였고, 그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6개 범주와 16개 주제목음이 도출되었다. 아래에서 도출된 범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과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점검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 상담 참여를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1: 용기를 내어 상담에 찾아가기).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상담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담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담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내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 및 상담센터를 찾는 적극적 탐색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적인 태도 및 성소수자 상담 역량을 갖춘 것을 필수요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TGNC 커뮤니티, 상담센터(혹은 상담자)의 SNS 계정,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변 성소수자 지인을 통해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 정보 탐색 행동은 상담 서비스의 특성과 연결 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1:1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적 속성을 가진 서비스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담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문수정, 김계현, 2012). 따라서, 상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내담자)는 자신의 구매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담자나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자 및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 탐색도 최대한 성공적인 구매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상담자가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으며, 반대로 상담자가 성소수자 친화적이면서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담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이나 혐오를 걱정해야 하는 일상 장면과는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태도나 성소수자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를 주요한 기준으로 두고 상담자/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정보 확인 후 결정한 상담센

터/상담자는 참여자가 긍정적인 상담 경험을 갖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 참여자는 상담센터에 처음 방문했을 때, 상담센터에 비치된 상담신청서의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묻는 질문의 선택지가 다양하게 구성된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는데, 이런 안도감은 참여자가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Berke, Maples-Keller, & Richards, 2016). 요약하면, TGNC 내담자도 다른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내담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상담자가 자신이 하는 경험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실제로 그런 요인들은 TGNC 내담자가 상담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참여자는 상담을 받을 센터나 상담자를 결정한 후에도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준비도 및 전문성에 대해 걱정 및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범주 2: 상담에서 나를 드러내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참여자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상담자 및 상담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한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료 상담이면 참여자가 상담자/상담센터 탐색 과정에서 (무료상담보다)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최종 선택에도 더 확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료상담인 경우에는 비용 때문에 참여자가 상담자/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를 일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상담을 받을 필요를 절감하지만, 상담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

을 때, 참여자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성소수자 상담 역량이 높거나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자에 대한 선호는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떤 상담자가 배정될지, 상담자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참여자가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가 상담자와의 신뢰를 쌓아가고 치료적 관계를 잘 형성하면, 참여자는 그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지지받는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주 3: 치료적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됨). 상담자에 대한 참여자의 신뢰는 상담자가 스스로 틀릴 가능성, 실수할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 상담자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참여자에게 상담 첫 회기에 부탁했는데, 참여자는 이럴 때 상담자의 의도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특정 언행이나 태도가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상담을 그만두지 않고 상담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은 여성이지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은 논 바이너리(Non-Binary)인 참여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고 불편감을 느꼈지만, 상담자가 상담 시작 전 자신이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실망하거나 상담 종결을 고려하기 보다는 상담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전

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참여자에게 적절한 명칭을 물어보거나, 혹은 더 선호하는 명칭이 있는지 묻는 것을 편하게 느꼈으며, 모르는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정보를 얻으려 하는 행동도 내담자와의 상담에 최선을 다하려는 상담자의 전문적 태도로 인식했다.

또한, 참여자는 상담을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나 고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경험했는데, 이런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참여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이해한다고 느꼈던 경험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상담 밖에서는 선택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는(성소수자인) 참여자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의 존재나 지지받고 공감받는 경험 등이 큰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그 정체성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상담, 즉 TGNC 긍정 치료(TGNC-affirmative therapy)를 통해 자신을 살펴 보게 됐다(범주 4: 상담의 효과로 성장하고 변화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불편하거나 화가 났던 장면들에서 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타인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 몸에 대한 불편감, 시스젠더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등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TGNC 긍정 치료의 중요성이 큰 만큼, 상담자가

TGNC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이 TGNC 긍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자신이 TGNC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담자는 슈퍼비전과 같은 전문적 조언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의뢰하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다만, 다른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의뢰하는 경우, 내담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거부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담(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경험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범주 5: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좌절됨). 이런 참여자의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단일한 사건으로 생기기보다는, 여러 번의 회기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누적되어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상담자에게 실망하거나 상담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기들은 상담자가 참여자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속해서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할 때, 상담자가 참여자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할 때, 상담자가 TGNC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낼 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참여자가 상담 장면에서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등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고정관념 및 편견에 맞닥뜨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트랜스젠더인데 밖에서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조금 더 남자 같아졌다’, ‘트랜스젠더 같지 않다’ 등의 발언을 상담자에게 들은 경험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담자의 언어표현은 트랜스젠더 여성 혹은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면 어떤 성별 표현(외모, 의복, 머리 모양 등)을 할 것이라는 상담자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가 타고난 자신의 외모, 신체 특징, 성 역할 등을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⁴⁾에 맞추어 나가는 트랜지션(transition)⁵⁾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트랜지션을 어떤 형태로, 또 어느 정도로 해나갈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박한희, 2018). 예를 들어, 지정성별이 남성이지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은 여성인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비롯한 의료적 조치나 화장, 여성용 의복 착용 등의 외모적 변화를 전혀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스젠더 여성이 화장하지 않고 치마나 원피스 등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성임을 의심받거나 입증하라고 요구받지 않듯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도 성별 표현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TGNC 내담자에 대한 상담 지침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4) 개인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적인 의식, 감정, 경험을 말한다. 이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몸(신체)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복장, 말하는 방식 등의 성별 표현도 포함한다.

5) 외모, 머리 모양, 복장 등 성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성별정정과 같은 법적인 조치, 그리고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과 같은 의료적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상담을 종결하면서도 상담을 더 지속하거나 상담에서 특정 주제를 더 다룰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범주 6: 아쉬움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함).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정체성이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상담자가 탐색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는 참여자가 자신의 TGNC 및 성소수자 정체성이 자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탐색하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거나 이해시키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등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쉽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상담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중에는 미해결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회기 제한이나 상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상담을 종결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특히, 유료상담을 받았던 참여자들은 상담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시기를 미루거나, 상담 기간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담 비용은 TGNC 내담자의 상담 접근성 및 상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Grant et al, 2011). 상담 비용에 대한 언급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의 상담 경험을 다룬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단순하게 본 연구에서 유료 상담을 받은 경험이 많은 참여자가 다수 표집되었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TGNC가 처해있는 고유의 경제적 위치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TGNC의 경우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과 지정된 성별의 불일치로 인해 고용 장면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박한희, 2018).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일자리는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혹은 구직을 시도하더라도 고용주에 의해 채용을 거부당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현실은 트랜스젠더가 비정규직이나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트랜스젠더의 낮은 경제적 지위로 연결된다(장서연 외, 201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상담 비용에 대한 언급도 이런 맥락을 고려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양성애자, 무성애자, TGNC에 대한 정보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구나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TGNC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다룸으로써, TGNC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TGNC 내담자의 상담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TGNC 내담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담자의 태도나 언어 사용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상담자가 TGNC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보여야 하는 적절한 태도나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

과가 TGNC 내담자의 경험을 대표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9명으로 TGNC 내담자의 상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에 타당한 표본의 수라고 판단되나, TGNC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경험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20대와 30대로, 특정 연령대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대학 성소수자 모임, 성소수자 인권 단체 등)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연구 참여 기회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연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연령 및 정체성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TGNC 내담자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자가 TGNC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지녀야 할 태도나 바람직한 언어 사용 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다만, 추후 TGNC 내담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상담 이론이나 상담 기법 탐색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담 실체에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 중 내담자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 대한 일부 부분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상담자, 내담자가 모두 참여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공춘옥, 정윤경, 박수영 (2018). 성소수자(LGB)의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 탐구, 4(4), 197-232.
- 김민제 (2020. 1. 16).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에 군인권센터 '복무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653.html
- 김보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문수정, 김계현 (2012). 추천자의 유사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 형성과정 비교분석. 상담학연구, 13(5), 2067-2084.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 박지훈, 이진 (2013).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 텔레비전에 나타난 홍석천과 하리수의 이미지 유형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8, 5-42.
-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공익과 인권, 18, 191-235.
- 손인서,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적 낙인과 의료적 주변화. 한국사회학, 51(2), 155-189.
- 신경희, 강미옥 (2014). 성소수자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3(4), 723-739.
- 원숙연 (2017).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정보*, 51(3), 225-256.
- 이근호 (2007).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서울: 한길사.
- 이남인 (2019). 현상학적 질적연구 심사자를 위한 현상학과 질적연구. *질적연구*, 20(1), 1-14.
- 이민정 (2015). 한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기독교상담사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 방법과 상담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현주 (2005).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 장서연, 김정혜, 김현경, 나영정, 정현희, 류민희 등 (2014). 성적지향·성별지향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은 (2016). 성소수자 미혼모의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그림책 만들기 미술치료.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Retrieved from http://www.kr 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0). Competencies for counseling with transgender clients.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4(3-4), 135-159.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70(9), 832-86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2015). *Resolution on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divers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about/policy/orientation-diversity>
- Becerra-Culqui, T. A., Liu, Y., Nash, R., Cromwell, L., Flanders, W. D., Getahun, D., ... & Quinn, V. P. (2018). Mental Health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youth compared with their peers. *Pediatrics*, 141(5), e20173845.
- Berke, D. S., Maples-Keller, J. L., & Richards, P. (2016). LGBTQ perceptions of psychotherapy: A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7(6), 373-382.
- Bess, J. A., & Stabb, S. D. (2009). The experiences of transgendered persons in psychotherapy: Voic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1(3), 263-282.
- Bieschke, K. J., McClanahan, M., Tozer, E., Grzegorek, J. L., & Park, J. (2000). Programmatic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The past,

- the present, and the course for the future. In R. M. Perez, K. A. DeBord, & K. J. Bieschke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p. 309-33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ckting, W. O., Miner, M. H., Romine, R. E., Hamilton, A., & Coleman, E. (2013). Stigma,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in an online sample of the US transgender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5), 943-951.
- Bowers, R., Plummer, D., & Minichiello, V. (2005). Homophobia in counsell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7*, 471-489.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 S., & King, M. (1978).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A: Sage publications.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Elder, A. B. (2016). Experiences of older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adults in psychotherapy: A qualitative study.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3*(2), 180-186.
- Fassinger, R. E., & Arseneau, J. R. (2007). "I'd rather get wet than be under that umbrella": Differentiating th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In K. J. Bieschke, & R. M. Perez & K. A. Debord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lients* (pp.19-49).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ofalo, R., Deleon, J., Osmer, E., Doll, M., & Harper, G. W. (2006). Overlooked, misunderstood and at-risk: Exploring the lives and HIV risk of ethnic minority male-to-female transgender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3), 230-236.
- Grant, J. M., Mottet, L., Tanis, J. E., Harrison, J., Herman, J., & Keisling, M. (2011). *Injustice at every turn: A report of the National Transgender Discrimination Survey*. Retrieved from National LGBTQ Taskforce website: http://www.thetaskforce.org/static_html/downloads/reports/reports/ntds_full.pdf
- Grossman, A. H., & D'augelli, A. R. (2006). Transgender youth: Invisible and vulnerable. *Journal of Homosexuality, 51*(1), 111-128.
- Halling, S., & Nill, J. D. (1995). A brief history of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6*(1), 1-45.
- Hendricks, M. L., & Testa, R. J. (2012). A conceptual framework for clinical work with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clients: An adaptation of the Minority Stress Model.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3*(5), 460-467.
- Hunt, J. (2014). An initial study of transgender people's experiences of seeking and receiving

- counselling or psychotherapy in the UK.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4(4), 288-296.
- Israel, T., Gorcheva, R., Burnes, T. R., & Walther, W. A. (2008). Helpful and unhelpful therapy experiences of LGBT clients. *Psychotherapy Research*, 8(3), 294-30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Publications.
- Mardell, A. (2016). *The ABC's of LGBT+*, FL: Mango Media.
- McCullough, R., Dispenza, F., Parker, L. K., Viehl, C. J., Chang, C. Y., & Murphy, T. M. (2017).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4), 423-434.
- Meyer, I. H. (201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S), 3-26.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CA: Thousand Oaks.
- Nadal, K. L. (2013).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lesbian, gay, and bisexual psychology.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lkinghorn,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sychology*. MA: Springer.
- Rachlin, K. (2002). Transgender individuals' experiences of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6(1).
- Shipherd, J. C., Green, K. E., & Abramovitz, S. (2010). Transgender clients: Identifying and minimizing barriers to mental health treatment.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4(2), 94-108.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NJ: John Wiley.

원 고 접 수 일 : 2020. 01. 2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6

게 재 결 정 일 : 2020. 06. 09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Clients

Jeongeun Park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Student

Seojin Chung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arracks Life Professional Counselor

Mi Namkoong

Sogang University
Studen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TGNC) individuals.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individuals who identify as TGNC.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Six main categories, sixteen theme clusters, and fifty-four themes were identified. The six categories were: considering counseling, revealing myself to counselors, empowered and healed through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making positive changes and growing up, frustrated expectations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and ending counseling with some regrets. Participants reported actively seeking TGNC-affirmative counselors. Importantly, counselors' TGNC affirmative approach and knowledge of TGNC-related issues played a critical role in participants' willingness to place their trust in counselors and their perception of counseling as safe. Implications for how counselors can provide more effective services to TGNC clients are discussed.

Key words : Transgender, Gender nonconforming, TGNC, Counseling Experiences, Phenomenological Study